

연구논문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조현숙 · 김경미 · 최규련*
농촌생활연구소 가정경영과 *수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A Study on the Stress and Coping with Farm Work of Rural Women

Hyun-Sook Cho, Gyung-Mee Gim and Kyu-Reon Choi

Dept. of Home Management, National Rural Science Institute

*Dept. Home Management, Suwon University

ABSTRACT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understand the working stress of rural women and their coping strategies, and to provide basic data related with rural welfare policy. The data were obtained through 318 samples of rural women under sixty years old who work full-time at their farms with their husbands. The questionnaire employed Likert-type scale with four-point, and then the data were analyzed by statistical methods of frequency, percentage, mean score, analysis of variance, t-test and Duncan test through SAS program. The significance level was $p < .05$.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he average stress level of rural women was over 2.9 points out of 4. 2) The stress level showed meaningful correlation with such variables as age, education, perception on economic status, and recognition by their husbands and other family members. The rural women who are over forty years old, below high school, disregarded from their family members were marked high stress level. 3) The level of rural women's stress coping strategies was quite as low as 1.95 out of 4. 4) The level of coping strategies showed meaningful correlation with such socio-demographic variables as age, perception on economic status and job satisfaction level. Those who aged over 40, perceives low economic status, lives together with husbands' parents, and shows "average" job satisfaction scored significantly lower coping strategy levels. 5) The level of stress didn't indicate significant relation with the type of coping strategy.

Key Words : work stress, stress, rural women, coping

I. 서론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참여는 공업-도시 중심의 산업화 정책으로 농촌 청장년 층의 이농에 의한 일손 부족과 급격히 상승한 농촌노임 등으로 가족노

동력이 강화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 예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참여율을 보면, 1975년 33.3%이던 것이 1997년 47.9%로 증가되어, 농림어업취업자 2,405천명 중 47.4%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농림수산 통계연보, 1997; 여성통계연보, 1997).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남성의 보조

적인 위치에 머물러 왔던 여성농업인들이 점차 중추적 역할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김이선, 1997; 김종숙 외, 1992; 농림수산통계연보, 1997; 정기환, 1997; 조현숙, 1999; 최덕경, 1998). 또한 과거 계절농업이었던 수도작 중심에서 점차 소득이 높은 시설원에 작물의 도입으로 여성의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시설재배는 작업의 특성상 남녀의 구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성의 섬세함과 지구력을 요하는 작업이 많아 여성의 참여율이 높으며, 일부 작업은 여성이 전담하는 경우도 있다(김이선, 1997). 이와 같이 농작업에서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의 현실은 지위가 향상되기보다는 오히려 과중한 노동과 열악한 작업환경, 저임금, 보상부족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정순, 1994). 또한 여성농업인은 일반 취업여성과 같이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지니나 도시지역의 취업여성과 달리 각종 지원체계와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어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과 관련된 스트레스 및 대처방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일부 있는 연구도 농작업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농촌 및 가족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작업 활동을 직업의 개념으로 보고 여성농업인들이 직업으로서 농작업 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대한 인지수준을 측정하고 스트레스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의 관계, 대처방법과 사회인구학적 변인과의 관계 및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대처방법과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여성농업인들의 농작업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더 나아가 여성농업인들의 농작업 스트레스 경감과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농작업 스트레스

1) 농작업 스트레스 개념

우리나라에서 농작업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농업인을 직업인으로 보고 농작업 스트레스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직무스트레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직 내에서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직무스트레스(김정인, 1988)라고 하였다. 즉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스트레스로서 그 연구 대상이 일반적 개념의 스트레스보다는 구체적이고 한정적이라 할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접근은 주로 개인의 건강 및 일의 생산성과 관련되어 연구되고 있고(강성희, 1988; 박월숙, 1994; 배무환, 1988; 이선규, 1991; 윤호열, 1996; 조희금, 1995; 한광현, 1992), 환경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Lazarus(1966)는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여 개인의 능력과 환경의 불균형을 초래시키는 지각된 작업요구가 개인에게 부과될 경우에 직무스트레스가 발생된다고 하였고, Beehr와 Newman(1978)은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한 종업원의 심신이 정상적인 기능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게끔 직무관련요소들이 작업자와 상호작용하여 그의 심리적·생리적 상황을 변화시키는 조건이라고 정의하였다. 배무환(1988)은 직무 스트레스를 인간과 환경의 부적합관계로 보고 환경이 개인의 능력 및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상의 것을 요구하거나, 개인의 욕구가 직무환경에 의해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선규(1991)는 개인의 필요, 요구, 능력, 가치 등의 개인특성이 외부적인 환경요인에 가로막혀 실현되지 못하거나 일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역기능의 감정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농작업 스트레스 개념을 농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의 요구가 개인의 능력을 초월하거나 그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개인의 요구가 환경에 의해 충족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생리적 및 심리적 불균형의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2) 관련변인 고찰

직무스트레스 및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보면 관련 변인으로 연령(고정자, 1994; 김정순, 1994; 배무환, 1988; 송영숙, 1996; 조희금, 1995), 학력(고정자, 1994; 배무환, 1988; 송영숙, 1996), 생활수준(최동숙, 1989; 김영철 외, 1989; 최덕경 외, 1992), 남편 및 가족의 인정(고정자, 1994; 구혜령, 1991; 조희금, 1995; 최규련 외, 1995), 시부모 동거여부(강성희, 1988), 건강지각(이영호 외 1994; 손현숙, 1991), 영농형태(김정순, 1994), 직업만족(김기열, 1992; 박경옥, 1988; 최규련 외 1995) 등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생활수준이 높고, 남편 및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건강할수록 스트레스가 낮았으나, 연령, 학력, 시부모 동거여부, 직업관련 변인에서는 서로 상반되거나 차이가 없는 등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결과를 고려하여 연령, 학력, 생활수준 지각, 건강지각, 남편 및 가족의 인정, 시부모와 동거여부, 직업의식, 직업만족도, 영농형태를 관련변인으로 설정하였다.

2. 농작업 스트레스 대처방법

1) 대처방법 개념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방법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70년대 이후에야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관심은 높았지만 그 상황을 극복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내용은 희소하며, 대부분 임상연구자들이 개인의 정신내부상태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하여 작업의 효율이나,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방안 등의 해결책 규명과는 거리가 멀었다(Coehlo, 1974; 한광현, 1992에서 재인용). 그러나 최근 들어 스트레스가 인간조건의 불가피한 측면이긴 하지만 적응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이 대처방법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강경식, 1996).

Lazarus(1978)에 따르면 대처방법은 개인의 자원을 초과하거나 개인에게 부담이 되는 환경적, 내부적 요구와 갈등을 극복, 인내, 절감,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고 정의하였고(한광현, 1992에서 재인용), Folkman & Lazarus(1980)는 스트레스거래에 의해 발생한 내적·외적요구를 극복, 감소 또는 관용하려는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으로 보았다(배무환, 1988에서 재인용). 또한 한광현(1992)은 대처개념을 지각된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 방안이라고 하였고, 장윤옥(1997)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스트레스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 일관되게 사용하는 인지적이며 행동적인 반응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을 바탕으로 농작업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대한 개념을 농작업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 이를 극복, 절감, 인내,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이 사용하는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으로 정의하였다.

2) 관련변인 고찰

직무스트레스 및 취업주부의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연령(심현진, 1993; 정문자 외 1998), 학력(심현진, 1993; 정문자 외 1998), 생활수준(심현진, 1993; 정문자 외 1998), 남편 및 가족의 인정(고미영, 1992), 시부모 동거여부(심현진, 1993), 직업만족(이선규, 1991) 등이 연구되었는데,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연령, 학력에 따라서는 전체 수준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일부 하위영역에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관련 변인 이외에 여성농업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의 건강지각, 직업의식, 영농형태를 포함하였다.

3. 스트레스와 대처방법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정신 및 신체적 건강을 예측할 때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개인의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취업주부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스트레스와 대처방법과는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한 이선규(1991)는 남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직접 행동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회피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반면 스트레스와 전체 대처방법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지만 하위영역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다. 배무환(1988)은 기업체에 근무하는 남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대처전략 사용수준이 더 높다고 하였고, 전영자(1992)는 전문직 취업주부의 경우 역할 갈등이 많을수록 가족체계 재구조화 방법을 적게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 밖에 조희금(1995)은 생산직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동부담이 많을수록 개인차원의 소극적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노동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와 대처방법과의 관계는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지 않았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먼 단위 이하지역의 농촌에서 남편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60세 이하의 여성농업인이다. 조사대상을 고르게 선정하기 위해 전국을 중부, 호남, 영남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평야지와 중간지로 나눈 다음 영농형태를 고려하여 9개 시군 36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절차는 조사도구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와 본조사 그리고 분석결과에 대한 확인 및 해석에 대한 객관성 유지를 위해 심층면접에 의한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320명을 대상으로 1998년 6월 11일부터 7월 22일 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중 내용이 부실한 자료 2부를 제외한 31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고, 심층면접에 의한 사례조사는 1998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 까지 본 조사를 실시한 농가 중 30호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2. 분석방법

자료는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ANOVA와 t-test로 분석하였고 하위 영역별 차이검증을 위해서 Duncan test를 하였는데 이 때 모든 검증의 유의수준은 $P < .05$ 이하로 하였다.

3. 조사도구

1) 농작업 스트레스

농작업 스트레스 척도는 기존에 연구된 결과가 없어 관련 문헌과 개방식 질문지에 의한 심층면접 및 4차례에 걸친 예비조사를 통하여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총 24개 문항 중 신뢰도가 낮은 1개 문항을 제외하고 2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요인분석 결과 역할과다(5문항), 기술정보(6문항), 외모손상(3문항), 역할갈등(3문항), 경제관련(2문항), 시설관련(2문항), 작업환경(2문항)의 7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척도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 전체 Cronbach's α 계수는 .82였고, 각문항은 Likert type의 4점 평정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2) 대처방법수준

농작업 스트레스 대처방법수준에 관한 척도 역시 기존 연구 결과가 없어 새로 작성하였다. 총 15개의 문항 중 신뢰도가 낮은 4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11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었다. 각 영역에 대한 명명은 문항의 구성내용을 고려하여 일을 가족끼리 나누어 하거나 고용인을 사용하는 등은 분담적 대처(3문항), 영농교육참가, 농산물가격 변동에 따른 재배 및 판매시기 조절, 남편에게 직접 불만 털어놓음 등은 개인적·직접적 대처(4문항), 영양제 복용, 기분전환을 위한 소비행동, 작업장 시설개선 등은 경제적·환경적 대처(4문항)로 구분하였다. 척도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 전체 Cronbach's α 계수는 .67였고, 척도는 Likert식 4점 평정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방법 사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3) 기타

기타 관련 변인으로 연령, 학력, 생활수준, 가족의 인정, 건강지각, 직업의식, 직업만족도, 시부모 동거여부, 영농형태 등에 관한 문항을 작성하였다.

연령은 45.7세였다. 학력은 초졸 이하가 46.2%, 중졸 30.8%, 고졸이상이 22.9%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이 농사일을 하는 것에 대한 남편 및 가족의 인정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9.7%가 대체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였으며, 41.5%는 매우 많이 인정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8.8%나 되었다.

영농형태는 논농사+일반밭농사가 2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논농사+일반밭농사+축산 18.2%, 논농사+일반밭농사+축산+시설원예 10.1% 순이었다.

Ⅲ.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 표 1 > 과 같다. 연령은 40~49세가 42.4%로 가장 많았고, 50세 이상이 32.1%, 39세 이하가 25.5%이었으며, 평균

< 표 1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집 단	빈도 (%)	변 인	집 단	빈도 (%)
연령	39세이하	81 (25.5)	남편 및 가족의 인정	매우많이인정	132 (41.5)
	40~49세	135 (42.4)		대체로인정	158 (49.7)
	50세이상	102 (32.1)		전혀인정안함	28 (8.8)
	평 균	45.7세	시부모동거 유무	동 거	126 (39.6)
학력	초졸이하	147 (46.2)	영농형태	별 거	192 (60.4)
	중 졸	98 (30.8)		논 + 밭	84 (26.4)
	고졸이상	73 (22.9)		논+밭+축산	58 (18.2)
생활수준 지각	잘 삶	40 (12.6)		논+밭+축산+ 시설원예	32 (10.1)
	보 통	229 (72.0)	직업의식	직업임	259 (81.4)
못 삶	49 (15.4)	반 반		47 (14.8)	
건강지각	건강함	98 (30.9)		직업아님	12 (3.8)
	보 통	83 (26.1)	직업만족도	만 족	106 (33.3)
	건강안함	137 (43.1)		보 통	135 (42.5)
		불 만		77 (24.2)	

농업에 대한 직업의식에서는 81.4%가 농업을 직업이라고 하여 선행연구(김종숙, 1992; 김정순, 1994; 김주숙, 1998)보다 매우 높았다. 그것은 조사대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농업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그저 그렇다가 42.5%로 가장 많았고, 만족한다 33.3%, 불만 24.2%로 나타났다. 특히 만족하는 정도는 1980년의 58%, 1984년의 43.3% 보다는 낮았으나, 1992년의

19.8%보다는 높게 나타났다(김종숙 외, 1992). 이것은 조사시기가 IMF로 인하여 도시 근로자들의 실직·퇴직 등의 불안 요소와 귀농 가구의 증가 현상 등으로 농업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스트레스

1) 농작업 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

은 <표 2>, <표 3>과 같다.

즉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스트레스 수준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를 상, 중, 하 3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표 2>, 중 집단이 54.1%로 가장 많았으며, 상 집단도 44.7%나 되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스트레스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90점(100점 환산치 73점)으로서 높게 나타났다 <표 3>. 이러한 결과는 농촌여성(김정순, 1994) 및 도시취업주부(송영숙, 1996; 심

현진, 1993; 전영자, 1992; 정문자 외, 1998; 조희금, 1995)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보다도 높았다.

<표 2>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스트레스 점수 분포

집 단	빈도 (%)
상(3-4점)	142 (44.7)
중(2-3점 미만)	182 (54.1)
하(1-2점 미만)	4 (1.3)
계	318 (100.0)

<표 3> 농작업 스트레스 평균점수

스트레스 요인	역할 과다	기술 정보	외모 손상	역할 갈등	경제 관련	시설 관련	작업 환경	평균
인지수준	3.01	2.35	3.30	2.74	3.46	2.76	3.46	2.90

농작업 스트레스 영역별 평균점수에서는 작업 환경, 경제관련 영역이 각각 3.4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외모손상으로 3.30점이었으며, 역할과다 3.01점, 시설관련 2.76점, 역할갈등 2.74점, 기술정보 2.35점 순이었다. 이와 같이 여성농업인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영역이 작업환경과 경제관련 영역으로 나타난 것은 여성농업인들이 일하는 장소가 퇴약별이거나 시설하우스 등 작업장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농산물 가격의 불안으로 소득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결과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스트레스 영역 및 그 수준을 종합해 보면 여성농업인은 농업과 관련된 기술정보 및 일에서의 역할 등 농사일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보다는 농산물가격의 불안정, 열악한 농작업환경, 외모손상 등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큼을 알 수 있었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농작업 스트레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농작업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았다. 농작업 스트레스는 연령, 학력, 생활수

준, 남편 및 가족의 인정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으나, 시부모 동거여부, 직업의식과 전체 농작업 스트레스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일부 하위 영역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자신의 건강지각, 영농형태에서는 하위 영역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 연령

연령에 따른 농작업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것은 연령별 스트레스가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고정자, 1994; 김정순, 1994; 배무환, 1988; 송영숙, 1996; 조희금, 1995)와 일치하는 것이다. 연령은 30대와 40대에서만 차이가 있었는데 40대 이상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은 여성농업인의 경우 40대부터 본격적으로 농사일에 참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정기환, 1997). 이는 도시의 취업주부(고정자, 1994; 송영숙, 1996) 및 농촌여성(김정순, 1994)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0대 이상에서 스트레스가 높다고 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반면에 30대 이하에서 스트레스가 낮았는데, 30대 이하의 여성농업인은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으로 인하여 농작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 표 4 >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농작업 스트레스

		역할과다	기술정보	외모손상	역할갈등	경제관련	시설관련	작업환경	평균
연령	39세이하	2.95	2.20 B	3.16	2.55 B	3.36	2.80	3.23 B	2.78 B
	40~49세	3.09	2.46 A	3.36	2.80 A	3.49	2.74	3.42 B	2.95 A
	50세이상	2.95	2.31 AB	3.35	2.83 A	3.50	2.77	3.69 A	2.91 A
	F	1.83	3.71*	2.42	3.82*	1.22	0.13	11.55***	4.10*
학력	초졸이상	3.04	2.37 AB	3.36 A	2.85 A	3.53 A	2.84	3.62 A	2.96 A
	중졸	3.04	2.45 A	3.38 A	2.71 AB	3.50 A	2.75	3.40 B	2.93 A
	고졸이상	2.91	2.17 B	3.09 B	2.56 B	3.26 B	2.63	3.23 B	2.73 B
	F	1.08	3.33*	4.68**	3.90*	4.21*	1.54	9.22***	6.82**
생활수준 지각	잘 삶	3.09	2.20	3.28	2.50 B	3.55	2.79	3.43 B	2.85 B
	보통	2.97	2.35	3.27	2.73 B	3.43	2.72	3.39 B	2.87 B
	못 삶	3.11	2.46	3.48	3.01 A	3.50	2.92	3.80 A	3.05 A
	F	1.14	1.61	1.90	5.36**	0.60	1.12	7.60***	3.54*
건강지각	건강함	3.05	2.37	3.28	2.65	3.55	2.67	3.38	2.89
	보통	2.98	2.29	3.20	2.73	3.37	2.77	3.39	2.85
	건강안함	2.99	2.37	3.39	2.82	3.45	2.82	3.56	2.93
	F	0.32	0.39	1.94	1.42	1.68	0.91	2.65	0.88
남편 및 가족의 인정	많이인정	3.10	2.26 B	3.31	2.70 B	3.55 A	2.69	3.50	2.89 B
	대체로인정	2.95	2.35 B	3.28	2.69 B	3.36 B	2.81	3.40	2.87 B
	안정안함	2.93	2.75 A	3.44	3.20 A	3.55 A	2.86	3.63	3.09 A
	F	1.92	5.86**	0.64	6.05**	3.13*	1.01	1.81	3.05*
시부모와 동거여부	동거	3.01	2.34	3.35	2.62	3.44	2.78	3.38	2.88
	별거	3.00	2.35	3.28	2.82	3.47	2.75	3.51	2.91
	t	0.06	-0.13	0.87	-2.30*	-0.40	0.33	-1.60	-0.54
직업의식	직업임	3.05 A	2.34	3.32	2.75	3.52 A	2.78	3.50	2.92
	반반	2.78 B	2.32	3.25	2.70	3.24 AB	2.61	3.31	2.78
	직업아님	3.07 A	2.51	3.14	2.81	3.04 B	2.96	3.21	2.90
	F	314*	0.37	0.56	0.11	5.74**	1.24	2.47	1.72
직업 만족도	만족	3.01	2.30	3.28	2.66	3.50	2.60 B	3.41	2.85
	보통	2.97	2.37	3.26	2.75	3.41	2.84 A	3.46	2.89
	불만	3.07	2.37	3.42	2.85	3.49	2.85 A	3.53	2.96
	F	0.54	0.32	1.41	1.55	0.68	3.14*	0.72	1.27
영농형태	논밭축시	3.09	2.55	3.45	2.84	3.73	2.92	3.64	3.05
	논밭축	3.00	2.30	3.18	2.72	3.43	2.81	3.31	2.85
	논밭	2.96	2.39	3.39	2.79	3.38	2.83	3.45	2.91
	F	0.44	1.31	2.41	0.27	3.03	0.20	2.50	2.01

* p < .05, ** p < .01, *** p < .001

않음으로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위 영역별로는 기술정보, 역할갈등, 작업환경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기술정보 영역에서 40대가 30대보다 높았고, 역할갈등 영역에서는 4, 50대에서 높았는데 이는 여성농업인이 농사일에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남성의 일 회피로 인해 여성의 일이 증가하는 데 (조현숙, 1999)서 오는 갈등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역할과다, 외모손상, 경제관련, 시설관련영역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학력

학력에 따른 농작업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중졸 이하의 집단이 고졸 이상의 집단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는데, 도시 취업주부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다고 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고정자, 1994; 배무환, 1988; 최규련 외, 1995).

하위 영역별로는 기술정보, 외모손상, 역할갈등, 경제관련, 작업관련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3) 생활수준

생활수준에 따른 농작업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못 사는 집단의 스트레스가 높았는데, 이 결과는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한 경우 역할갈등 및 노동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연구(조희금, 1995; 최규련 외, 1995)와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한다는 최덕경 외(1992)의 연구등과 같다.

하위 영역별로는 역할갈등, 작업환경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4) 남편 및 가족의 인정

남편 및 가족의 인정에 따른 농작업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편이나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집단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가 낮았다. 그것은 여성근로자의 경우 남편의 지원이 중요하며(한광현, 1992), 아내의 취업에 대한 가족의 지지도가 높을 경우 부인이 역할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다는 연구(고정자, 1993; 구혜령, 1991; 조희금, 1995; 최규련 외, 199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위 영역별로는 기술정보, 역할갈등, 경제관련영역에서 차이를 보였다.

(5) 시부모 동거여부

시부모 동거여부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하위영역인 역할갈등 영역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시부모와 동거하는 집단의 스트레스가 낮았는데 이는 시부모와 동거하는 집단이 연령이 낮아 농작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거나, 상대적으로 시부모가 농작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 농작업에서 남편과의 갈등이 적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이는 도시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강성희(1988)가 시부모와 동거하는 집단의 스트레스가 낮다고 한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6) 직업의식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역할과다, 경제관련 영역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즉 역할과다 영역에서 직업 또는 직업이 아니라고 한 집단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경제관련 영역에서도 직업이라고 한 집단이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농업에 참여하는 만큼 소득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7) 직업만족도

직업만족도에 따른 농작업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하위 영역인 시설관련 영역에서 만족하는 집단과 보통이하의 집단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만족하는 집단의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직업만족도와 전체 스트레스에서 차이가 없는 것은 농업을 여성농업인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직업이라기보다는 농가여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하여 참여한 경우가 많고, 여성농업인 스스로도 농업을 다른 직업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위치에 두고있어 직업에 대한 의식이 적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직장을 구

하기 힘든 상황에서 직업 만족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되었다.

그밖에 영농형태와 자신의 건강지각도에 따른 차이를 보았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농작업 스트레스 대처방법수준

1) 농작업 스트레스 대처방법수준의 일반적 경향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스트레스 대처방법수준의 일반적 경향은 <표 5>, <표 6>과 같다.

<표 5> 농작업 스트레스 대처방법수준 점수 분포

집 단	빈 도 (%)
상(3-4점)	6 (1.9)
중(2-3점 미만)	145 (45.6)
하(1-2점 미만)	167 (52.5)
계	318 (100.0)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스트레스 대처방법수준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전체를 상, 중, 하 3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표 5>, 여성농업인의 대처방법 수준은 하 집단이 52.5%로 가장 많았고, 중 집단이 45.6%, 상 집단이 1.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농업이 농작업 스트레스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문제나 그 결과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스트레스 대처방법수준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1.95점(100점 환산치 49점)으로 보통보다 낮았다(<표 6>). 이러한 결과는 도시취업주부(고미영, 1992; 배무환, 1988; 심

<표 6> 농작업 스트레스 대처방법수준 평균점

대처방법 유형	분담적 대처방법	개인적 · 직접적 대처방법	경제적 · 환경적 대처방법	평균
인지수준	1.76	2.05	1.99	1.95

현진, 1993; 이선규, 1991; 전영자, 1992; 정문자의 1998)보다 낮은 것이다.

대처방법수준 하위 유형별 평균점수에서는 개인적 · 직접적 대처방법이 2.05점으로 보통 수준이었고, 경제적 · 환경적 대처방법은 1.99점, 분담적 대처방법은 1.76점으로 매우 낮았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개인적 · 직접적 대처방법수준이 높은 것은 저소득 취업주부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정문자 외(1998)와 생산직 기혼여성들은 적극적인 의미의 개인적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한 조희금(1995)의 연구와 같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농업인들이 농작업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성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 아예 체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농작업 스트레스 대처방법수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대처방법의 사용수준은 연령, 생활수준, 시부모 동거여부, 직업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학력, 남편 및 가족의 인정, 자신의 건강지각, 직업의식, 영농형태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일부 하위 유형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직업의식에서는 하위 유형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1) 연령

연령에 따라 대처방법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40대 이하와 50대 이상에서만 차이를 보였는데 40대가 50대보다 대처방법 사용수준이 높았다. 하위 유형별로는 분담적 대처방법과 개인적 · 직접적 대처방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두 유형 모두 40대 이하가 50대 이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젊은층의 경우 학력 및 생활수준이 높아(연령과 학력과의 상관계수 -0.60, 연령과 생활수준과의 상관계수 -0.19) 개인적인 자원이 많음은 물론 일이 많을 때는 고용인을 쓰는 등의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표 7〉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대처방법

		분담적 대처방법	개인적·직접적 대처방법	경제적·환경적 대처방법	평 균
연령	39세이하	1.87 A	2.20 A	1.93	2.01 A
	40~49세	1.82 A	2.14 A	1.98	1.99 A
	50세이상	1.59 B	1.83 B	2.05	1.84 B
	F	6.37**	10.83***	1.31	4.58*
학력	초졸이하	1.70	1.91 B	2.03	1.89
	중 졸	1.75	2.14 A	1.98	1.97
	고졸이상	1.89	2.24 A	1.93	2.03
	F	2.40	8.70***	0.83	2.71
생활수준 지각	잘 삶	1.93 A	2.18 A	2.23 A	2.13 A
	보 통	1.77 AB	2.08 A	1.97 B	1.95 B
	못 삶	1.56 B	1.84 B	1.89 B	1.78 C
	F	4.45*	4.10*	5.01**	7.44***
건강지각	건강함	1.69	2.15 A	1.90 B	1.93
	보 통	1.78	2.11 AB	1.95 AB	1.96
	건강안함	1.79	1.95 B	2.08 A	1.95
	F	0.79	3.47*	3.53*	0.09
남편 및 가족의 인정	많이 인정	1.75	2.18 A	2.05	2.01
	대체로 인정	1.76	1.98 AB	1.95	1.91
	인정 안함	1.80	1.88 B	1.95	1.88
	F	0.08	4.97**	1.44	2.59
시부모와 동거 여부	동 거	1.69	2.00	1.89	1.87
	별 거	1.80	2.09	2.06	2.00
	t	-1.65	-1.20	-2.79**	-2.51*
직업의식	직업임	1.77	2.06	2.01	1.96
	반 반	1.73	2.06	1.90	1.91
	직업아님	1.55	1.98	1.92	1.84
	F	0.78	0.09	0.96	0.67
직업 만족도	만 족	1.77	2.20 A	2.08 A	2.04 A
	보 통	1.77	1.97 B	1.91 B	1.89 B
	불 만	1.72	1.99 B	2.01 AB	1.92 AB
	F	0.20	4.46*	3.21*	3.65*
영농형태	논+밭+축산+시설원예	1.94 A	1.93	2.03	1.98
	논+밭+축산	1.73 AB	2.16	1.91	1.95
	논 + 밭	1.61 B	1.95	1.99	1.87
	F	3.89*	2.39	0.59	0.98

*p<.05, **p<.01m ***p<.001

(2) 교육수준

교육수준에 따른 대처방법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일부 하위 유형인 개인적·직접적 대처방법에서는 중졸이상의 집단에서 개인적·직접적인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3) 생활수준

생활수준에 따른 대처방법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각 하위 유형인 분담적 대처방법, 개인적·직접적 대처방법, 경제적·환경적 대처방법에서도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대처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생활수준은 대처방법 사용정도를 설명해주는 가장 강력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4) 자신의 건강지각

건강지각에 따른 대처방법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 유형인 개인적·직접적 대처방법, 경제적·환경적 대처방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개인적·직접적인 대처방법사용은 건강한 집단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이와는 반대로 경제적·환경적 대처방법은 건강하지 않은 집단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5) 남편 및 가족의 인정

남편 및 가족의 인정에 따른 대처방법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일부 하위 유형인 개인적·직접적 대처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인정받고 있는 집단이 개인적·직접적인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6) 시부모 동거여부

시부모 동거여부에 따른 대처방법수준은 전체 및 하위 유형인 경제적·환경적 대처방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시부모와 별거하는 집단이 동거하는 집단보다 대처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별거하는 집단이 동거하는 집단보다 활동이 더 자유롭고 경제적인 재량권도 많으며, 남편 또한 시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많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였다.

(7) 영농형태

영농형태에 따른 대처방법수준은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나 분담적 대처방법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논농사+일반밭농사+축산+시설원예를 같이 하는 집단이 논농사+일반밭농사만 하는 집단보다 분담적 대처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 집단이 일이 연중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에 몰리는 경우도 많아 바쁠 때는 음식을 시켜먹던가, 고용인을 쓰고 가족들끼리 일을 분담하는 등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으로 보여졌다.

(8) 직업만족도

직업만족도에 따라 대처방법수준은 전체 및 하위 유형인 개인적·직접적대처 방법, 경제적·환경적 대처방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직업에 만족하는 집단과 보통인 집단에서만 차이가 있었는데 만족하는 집단이 보통인 집단보다 대처방법 사용수준이 높았다. 이는 직무에 만족할수록 대처방법의 사용정도가 높다는 한광현(1992)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밖에 직업의식에 따른 대처방법 사용정도를 보았으나 전체 수준이나 하위유형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농작업 스트레스에 따른 대처방법수준

농작업 스트레스에 따른 대처방법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그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와 대처방법과는 관계가 없다는 연구(강경식, 1996; 구혜령, 1991; 배무환, 1988; 조희금, 1995)와 일치한다.

농작업 스트레스에 따른 대처방법 하위유형에서는 개인적·직접적 대처방법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스트레스가 중간인 집단에서 개인적·직접적인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중간인 집단에서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걱정수준의 스트레스를 유지하면 작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순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Quick, 1984; 송영숙, 1996에서 재인용) 것과 같이 해석될 수 있겠다. 즉 스트레스가 중간인 집단은 적당한 도전감을 갖게 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이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
게 되고 따라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문제

에 적용해 보려는 노력이 다른 집단 보다 많기 때
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 표 8 〉 농작업 스트레스에 따른 대처방법

	분 류 (%)	분담적 대처방법	개인적 · 직접적 대처방법	경제적 · 환경적 대처방법	평 균
역할과다	상 (60.4)	1.79	2.02	2.00	1.95
	중 (33.3)	1.68	2.14	1.97	1.95
	하 (6.3)	1.82	1.93	1.99	1.92
	F	1.32	1.66	0.07	0.05
기술정보	상 (61.6)	1.75	2.01 B	2.01	1.94
	중 (10.4)	1.77	2.30 A	1.99	2.04
	하 (28.0)	1.77	2.05 B	1.95	1.94
	F	0.03	3.17*	0.40	0.88
외모손상	상 (78.9)	1.75	2.01	2.02	1.94
	중 (16.7)	1.78	2.22	1.92	1.99
	하 (4.4)	1.74	2.18	1.75	1.90
	F	0.05	2.87	2.21	0.36
역할갈등	상 (46.2)	1.77	2.03	2.02	1.96
	중 (41.5)	1.78	2.07	1.92	1.94
	하 (12.3)	1.63	2.10	2.10	1.97
	F	0.93	0.24	2.09	0.12
경제관련	상 (84.9)	1.74	2.06	1.99	1.95
	중 (12.6)	1.87	2.01	1.99	1.96
	하 (2.5)	1.83	2.13	1.84	1.94
	F	0.84	0.15	0.31	0.02
시설관련	상 (55.0)	1.74	1.99	1.98	1.92
	중 (32.7)	1.83	2.17	1.99	2.01
	하 (12.3)	1.63	2.03	2.04	1.92
	F	1.57	2.62	0.21	1.51
작업환경	상 (84.0)	1.73	2.02 AB	1.99	1.93
	중 (13.5)	1.88	2.30 A	2.00	2.07
	하 (2.5)	1.92	1.75 B	1.97	1.88
	F	1.32	4.69**	0.02	2.16
전 체	상 (44.7)	1.78	1.94 B	1.96	1.90
	중 (54.1)	1.72	2.15 A	2.01	1.98
	하 (1.3)	2.34	2.00 AB	2.13	2.14
	F	2.16	4.22*	0.58	1.70

* p < .05, ** p < .01, *** p < .001

농작업 스트레스 각 하위 영역에서는 기술정보 및 작업환경 영역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개인적·직접적 대처방법 사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스트레스가 중간인 집단이 개인적·직접적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농작업 스트레스에 따른 대처방법에서 차이가 없이 나타난 것은 대부분의 여성농업인들이 농작업 스트레스는 높고 대처방법 사용 수준은 낮은 쪽으로 편향된 데 기인한 것 같았다. 그 밖에도 여성농업인의 경우 연령이 높고, 학력과 생활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매우 부족함은 물론, 가정 및 사회의 지원체제도 없는 등 여성농업인이 처한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농촌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성 역할 고정관념 및 가부장적 권위의식도 여성농업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어 대처방법에 대해 무력해진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농업인이 농사일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농작업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하여 파악함으로써 여성농업인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더 나아가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스트레스 수준을 상, 중, 하 3개 집단으로 나누어 점수 분포를 본 결과 중 집단이 54.1%로 가장 많았고, 상 집단도 44.7%나 되었다. 또한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4점만점에 2.90점(100점 환산치 73점)으로 매우 높았으며, 하위 영역에서는 작업환경 및 경제관련 영역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외모손상, 역할과다 순이었다.

농작업 스트레스는 연령, 학력, 생활수준지각, 남편 및 가족의 인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은 40대 이상, 학력은 중졸이하, 생활수준에서는 못사는 집단, 남편 및 가족의 인정에서

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집단에서 농작업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자신의 건강지각, 시부모 동거여부, 영농형태, 직업의식, 직업만족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도시의 취업주부(생산직, 저소득층, 전문직, 일반 기업체)의 스트레스와 비교해 볼 때 여성농업인이 도시 취업주부보다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도시 취업주부의 경우 연령, 학력, 직업관련 변인에서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으므로 여성농업인과 전체적인 비교가 어려웠고, 생활수준, 남편 및 가족의 인정에서는 도시 취업주부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즉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남편 및 가족의 인정을 받을수록 스트레스가 낮았다.

둘째,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스트레스 대처방법 수준도 상, 중, 하 3개 집단으로 나누어 점수 분포를 본 결과 하 집단이 52.5%로 가장 많았고, 중 집단도 45.6%나 되었다. 또한 대처방법 사용수준은 4점만점에 1.95점으로(100점 환산치 49점) 보통보다 낮았다. 하위 유형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이 개인적·직접적 대처방법으로 보통 수준이었고, 경제적·환경적 대처방법, 분담적 대처방법은 보통 수준보다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여성농업인은 농작업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음에 반하여 대처방법 사용수준이 낮았다.

관련 변인에 따른 대처방법 사용은 연령, 생활수준지각, 시부모 동거여부, 직업만족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연령이 40대 이상에서, 못산다고 지각할수록, 시부모와 동거하는 집단에서 대처방법 사용정도가 낮았다. 그러나 직업만족도에서는 보통이라고 한 집단의 대처방법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고, 학력, 자신의 건강지각, 남편 및 가족의 인정, 영농형태, 직업의식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도시 취업주부와 비교에서는 여성농업인이 도시 취업주부보다 대처방법을 적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련변인에 따른 대처방법 비교에서 도시 취업주부의 경우 일관된 경

향을 보인 변인이 거의 없고 선행연구도 적어 본 연구와 비교하기 어려웠다.

셋째, 농작업 스트레스수준에 따른 대처방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개인적·직접적 대처방법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기술정보 및 작업환경 영역에서 스트레스가 중간이라고 한 집단이 개인적·직접적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농업인은 농작업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성농업인 중 농작업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은 연령이 많고, 학력과 생활수준이 낮으며, 남편 및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집단이고, 대처방법 사용수준이 낮은 집단은 연령이 높고, 생활수준이 낮으며, 직업만족도가 낮고, 시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집단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들이 우리나라 농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각종 영농정책에 이들을 위한 배려(영농교육, 자금지원 등)가 우선되어야 하겠고, 또한 가정에서도 여성의 농작업 참여를 도시의 취업주부와 같이 직업활동으로 인정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농업인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영역이 작업환경 및 경제관련 문제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작업장의 환경이 열악하고 일한 만큼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것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보조장비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이와 아울러 기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밭의 경지정리와 작업방법의 규격화(예: 밭이랑의 넓이, 작물의 재배방법)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농가에서도 계획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작물의 소득을 예측할 수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겠다.

셋째, 여성농업인들이 사용하는 대처방법은 분담적 대처보다는 개인적·직접적인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스트레스를 누적시키게 되어 더 많은 어려움을 안겨 줄 수도 있게 된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에게 스트레스에 직면하면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 및 평소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조사대상을 남편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60세 이하의 여성으로 제한함으로써 남편이 없는 여성과 60세 이상의 여성은 포함되지 않아 전체 여성농업인에게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둘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도시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비교하였으므로 해석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여성의 농작업 참여를 도시 취업주부의 직무스트레스와 같은 관점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을 연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경식, 1996, 성격, 스트레스 지각 및 대처, 그리고 負的 情動間의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성희, 1988, 취업주부의 직무만족도와 역할갈등도 연구-사무직 여성과 전문직 여성의 비교-,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미영, 1992,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에 대한 대처 행동-교사, 공무원, 간호사에 대하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정자, 1994, 맞벌이 부부가족의 가족자원,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 97-116.
- 구혜령, 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논문.
- 김기열, 1992, 역할갈등과 직무만족관계에 관한 연구-대구지역 은행조직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철 · 정향균 · 이시형, 1989, 일반성인에서의 생활스트레스가 정신증상 및 신체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28(2).
- 김이선, 1997, 개방농정체제에서 여성의 농업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97연구보고서.
- 김정순, 1994, 농촌여성의 성역할 태도와 스트레스인지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여성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인, 1988,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반응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숙 · 정명채, 1992, 농촌여성의 의식변화와 역할에 관한 연구-충남지역 4개 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주숙, 1998, 한국농촌사회의 구조변화와 여성의 역할, 대산논집 : 531-554.
- 농림수산부, 1997, 농림수산통계연보.
- 박월숙, 1994, 역할갈등, 스트레스 및 직무만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무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무환, 1988, 직무스트레스의 대처전략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현숙, 1991, 도시주부의 자아긍정감과 의사결정 공동참여가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영숙, 1996, 사무직 여성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중재변인, 심리적 긴장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현진, 1993,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정내 스트레스와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호열, 1996, 스트레스 관리훈련과 통제소재가 지각된 스트레스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규, 1991, 직무 스트레스 유발요인, 대처전략과 조직구성원의 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호 · 최외선, 1993, 개인적자원이 스트레스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2) : 97-109.
- 장윤옥, 1997, 가정자원, 통제소재 및 스트레스 대처방법이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 287-300.
- 전영자, 1992,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 대처방안,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기환, 1997, 농가여성의 노동력구조와 경제활동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정문자 · 이미리, 1998, 도시 저소득층 주부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 척도개발과 대처행동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6(12) : 129-143.
- 정문자 · 이미리 · 어주경, 1998,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제특성과 주부의 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6) : 13-26.
- 조현숙, 1999, 농촌여성의 농작업참여 실태와 지원요구도 연구, 농촌생활과학, 20(1) : 10-16.
- 조희금, 1995, 생산직기혼여성의 노동부담 및 건강상태와 대처방안과의 관계 -대구시 생산직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규련 · 서동인 · 조병은 · 신화용 · 김양희, 1995, 맞벌이가정의 가족문제, 하우, 99-118.
- 최덕경 · 이정우, 1992, 도시주부의 가정생활문제 인지와 스트레스정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 115-13.
- 최덕경, 1998, 농가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보고 I -경영형태별 농가주부의 특성과 농업경영,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9(1) : 79-95.
- 한광현, 1992,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실증적 연구-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Lasarus, R. S., 1966, Psychological stress and the coping process, New York, McGrawHill.
- Las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